

ㄹ 교회 분열 해결책: 그리스도의 생각 품기

성경말씀: 빌2:1-11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아니러니> 바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을지도 모르지만 아무 염려 없다. 성도들의 기도, 성령님의 공급,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이 이득, 실제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사는 것이 낫다.

2장에는 바울의 염려와 권고: 에바브라디도, 빌립보 사람들 선물, 나쁜 소식, 교회에 분열이 있다. 교회의 어려움: 외부의 적(빌3:1-3), 내부의 분열(4:2-3)

교회는 사람들, 그러므로 항상 문제가 있다. 고린도 교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파 분열은 성숙하지 못함의 표시(고전3:1), 육신적인 사람들의 표시, 영적 베이비

50년 이상 교회 다니며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많이 보았다. 가장 참기 힘든 것: 교회 내부의 싸움 서로 분열되어 오전에 한 그룹, 오후에 다른 그룹, 피켓을 들고 시위 미국 교회; 건축 후 복도 본당에 카펫 까는 것(어떤 색)

검색 엔진 교회 분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대형 교회들의 내부 갈등, SNS로 확산됨

1. 가십, 2. 교회일 비밀리에 수행, 3. 교회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들의 공략, 4. 자기 스타일 고집, 5. 문제 덮기, 6. 극도의 비난(SNS), 7. 교회 치리 부족, 8.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편애, 9. 목사 주변의 파워 그룹, 10. 교회 세습, 11. 기도 부족,

요약: 1. 교만, 2. 오해(교회, 교리), 3. 우상 숭배(자리), 4. 탐욕(돈, 여자)

거의 모든 교회가 분열의 요인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목사와 성도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늘 염두에 두고 실제 상황에 잘 대처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모여도 우리는 인간이다.

<교회 분열 해결책: 그리스도의 생각 품기>,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바울의 권면(1-4)

1장 27절, 복음에 합당한 행실, 한마음, 너희 안에 분열,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는 방법: 두 가지, (1) 성도들이 자기를 살펴보고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영혼의 자유), (2) 목사나 외부의 힘에 의해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자유 없이 하나), 좋은 것 같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바울은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부드럽게 권면한다.

1.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1).

- a. 그리스도로 인한 안위, 구원받아 천국이 확실한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보상이 있는가?
- b. 사랑의 위로, 나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 위로, 병약자 위로
- c. 성령의 교제, 영적 교통(성경 탐구, 묵상, 기도)
- d. 인정이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2. 이런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있거든’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실한 신자라면’이라는 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한다. 구원받기 전과 후의 변화

3.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결코 다른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런데 내 것을 접는 일도 필요하다. 서창 캠퍼스, 땅 구매, 건축 규모, 목사는 작게, 성도들은 크게, 그래서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아마 반대가 되었으면 건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쨌든 평안하게 건축함, 목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식사할 때도 줄 서고. 여행가서도 대접받지 않고, 그냥 할 일 할뿐이다.

4. 바울의 간청(2): 이것이 목회자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희가 다투지 않고 교회를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기쁨

5. 왜 문제가 생기느냐?(3)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한다. 이유: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나의 철학: 교회의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내 영광이 되면 안 된다.

6.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한다(롬12:3; 고전4:7)

7. 그러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게 된다(4).

8. 이 일의 대표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5-11), 자기(12-18), 디모테(19-24), 에바브로디도

예수님의 자기 비움

빌2:5-11은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영화가 다 들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순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요약

1.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을 가지라(5). 그분의 태도, 동기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결과
2.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 우리가 말하는 삼각형, 네모 등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팔, 형체를 말하지 않는다. 의인화를 통한 하나님의 속성 묘사, 형체: 내부 본성이 밖으로 표현된 것,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다(요1:1).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 강탈은 내 것이 아니기에 빼앗는 것 삼위일체,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면 안 된다. 세 인격체가 권능, 권위, 속성, 아름다움, 거룩함 등에서 동등하다. 세 분이 다 하나님, 한 하나님
2.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종의 형체,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한다. 과거에 대언자들을 보내셨다. 이제는 직접 오셨다(히1:1). 사람의 사정을 듣고 직접 말하기 위해,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 마귀가 죽음의 권세, 그래서 천사들의 본성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 종의 형체, 누추한 것들, 베들레헴 마구간,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많은 지혜와 지식, 권능,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유: 자기가 아니라 남을 돌보려고(4).
3.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남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것이 크리스천 정신, 루시퍼를 보라, 아담을 보라. 왜 타락하는가? 자기를 세우려고,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4.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얻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요13),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감사한 일: 나대는 사람이 거의 없다. 모두 조용히 섬긴다. 교회 리더들이 다 그렇다. 이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정신을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한다.
5. 남을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교회 일이나 세상일이나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함, 그러므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함,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자.
6. 이 모든 것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 생각으로 점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가?
7. 그 결과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신다. 신약 성경의 진급 법칙: 십자가 다음에 영광
 - a. 높이 올리신다: 사람은 그분을 최저 상태로 밀어놓았다. 그래서 그분의 혼은 땅의 지옥 부분에 가셨다(엡4).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려 위로 데리고 가신다.
 - b.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주(11), 그래서 우주 공간 모든 곳의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이름에 굴복하게 하심(10),
 - c.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심
8.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 십자가와 부활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 a.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
9. 남의 일을 돌볼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교회의 화평, 한마음,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
10.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다려야 한다(벧전5:5-6). 남이 알아줄 때까지 이것이 없이는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
11. 요셉은 이집트에서 13년 고생, 총독, 다윗도 13년 고생, 왕, 다니엘도 포로 고생, 총독

결론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가? 전도, 선교, 교육, 외적 섬김, 다 외적 모양

그런데 목사 눈에는 다툼이 없는 교회: 2:3-4를 이루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일, 외적 모양은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바울의 권면(2)